

지식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김영식*

지식과 대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는 “대학 = 지식”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되기까지 할 정도이다. 이같은 지식과 대학의 관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당연”하다거나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편적이고 유형적인 것으로 보고 역사상 비슷한, 비교가능한 상황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역사상 그런 비교가능한 사례들의 수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과거 역사에서 비슷한 수많은 예들을 찾아내고 그 예들에 바탕해서 통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현재 대학과 지식이 처한 상황이 워낙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식의 고찰을 한다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과거와의 비교가 현재의 상황의 이해를 위해 유의한 통찰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같은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식과 대학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가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지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학의 대응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단이나 처방보다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지녀야 할 시각, 방향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I.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대학은, 특히 우리나라

*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라의 대학은 그같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무리와 문제를 빚고 있고 대학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위기”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¹⁾

역사상 대부분 그러했듯이 지식의 변화는 대체로 대학의 밖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대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쉬우며 때로는 그에 저항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지식의 변화는 주로 대학의 바깥에서 일어나고 대학 바깥의 사람들이 주도하며, 대학은 그같은 변화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이 지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결국 대학 외부로부터의 개혁의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대학은 그같은 개혁의 시도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여 자체의 개혁을 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사회가 결코 대학에 의한 지식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같은 다양한 요구를 지닌 사회가 대학이 제공하는 지식에 그대로 만족하려 들지는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상 대학 외부의 다른 주체들이 지식 생산의 과정과 지식의 발전 방향의 결정에 개입하려 하고 지식을 공유하려 하며 때로는 새로운 대안적 지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은 대학 밖에 안주하지 않으며,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대학이 이를 수용해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근세 초기 유럽의 왕실이나 도시민들, 그리고 기술자, 장인 계층들은, 그리고 남북전쟁 후 미국사회의 신흥계층은 당시 대학이 소유하고 제공하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된 사회와 그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을 요구했다.²⁾

때로는 이같은 사회의 요구는 아예 대학의 바깥에서 대안적인 학문적 제도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가 그런 새로운 제도를 지식 창출의 주된 도구로 선택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며 그런 경우 결국은 대학이 뒤늦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처럼 대학이 지식 생산, 전달 등의 활동의 핵심적인 주체가 된 후에는 지식과 관련해서 대학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의 요구는 더욱 집요해 진다. 새로운 지식의 주체가 대학 밖에서 대안적 제도를 세우고 거기에

1) 그 대표적인 형태가 아래 6절에서 이야기하게 될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 Paolo Rossi, *Philosophy, Technology and the Arts in the Early Modern Era*(New York: Harper & Row 1970); Laurence R. Veysey,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 Univers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자리잡는 데에 만족하기보다는 대학 내에 자리잡음으로써 대학이 지닌 지식과 관련된 압도적 지위를 공유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 과학기술, 환경, 생명 윤리, 여성 문제에 대한 추구가 당초 대학 외부의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지식으로서 이들 분야는 결국 대학에서 강의되고 연구되게 되어 온 과정이 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13세기 유럽에서 대학이 기원한 것 자체가 새로운 지식의 출현에 대해 기존의 학문제도와 교육 제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이슬람으로부터 번역을 통해 유입된 다량의 고대 문헌들에 담긴 새로운 지식과 그같은 지식이 낳은 지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써 대학이 유럽의 여러 지적 중심지들에서 생겨났던 것이다.³⁾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중세 이슬람의 대학으로 불리는 “마드라사”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팽창하던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 율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급격히 증대되어 가는 수요에 대응하여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⁴⁾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식 대학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며,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시기 조선 사회의 민립대학 설립운동 역시 그같은 새로운 지식의 상황에 대응해 “대학”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예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식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서 생긴 대학이라는 제도의 속성이 지극히 안정되고 고착적이어서 일단 생겨나서 자리잡은 후에는 쉽게 변화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대학을 둘러싼 외부 사회의 여러 상황과 그것이 지식에 대해 지니는 요구는 계속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에 대응해 변화하기보다는 그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일이 흔하며, 때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의 중심에서 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Edward Grant, “The Medieval University and the Impact of Aristotelian Thought,” *Physical Science in the Middle Ages* (New York: Wiley, 1971), chap. 3--우리말 번역. 홍성욱, 김영식 역, 『중세의 과학』(민음사, 1992). 중세 유럽 대학의 형성 배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Gordon Leff, *Paris and Oxford Universities in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An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History* (New York, 1968)을 볼 것.

4) George Makdisi,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College in Islam and the West,” Khalil I. Seeman, ed., *Islam and the Medieval West* (Albany: SUNY Press, 1980), pp. 26-49.

II.

물론 대학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또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항상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그러한 변화의 요구가 제기되는 처음 단계에서는 흔히 생경하고 성급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그것이 서툴고 비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른바 “BK21”로 대표되는 일련의 움직임도 대학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 외부의 요소들에 의해 생경하고 성급하게 시도되는 대학 개혁 추진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성급한 초기 개혁 시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BK21”을 통한 대학개혁의 시도 또한 아마도 실패로 끝나기가 쉽다. 그러나 대학 바깥의 이같은 개혁의 요구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실패를 겪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같은 실패를 교훈삼고 경험에 바탕해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한 도전들은 점점 강력해 지고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있게 될 것이며 아마도 결국 대학이 이같은 사회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이러한 도전의 내용을 수용하는 대학 자체의 주도적 대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학이 그에 반대하고 그 내용을 무시하다가 끝내 외부의 힘에 굴복하는 피동적 대응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BK21”에 대한 일부 대학, 일부 분야의 대응은 바로 그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해 준다.

사실 외부의 비판은 많은 경우 대학 내부의 교수들에게는 천박하고 속물스럽고 유치하고 즉물적이며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때로는 무식하고 비학문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변화를 외치는 사회의 요구에 대학이 저항하던 과거의 여러 경우들에도 당시 대학 내부의 교수들에게는 외부의 소리가 그런 식으로 느껴졌을 것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천박함”, “속물스러움” 같은 속성들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대학 내부의 지식과 대학 교수의 모습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인 유용성, 외부사회와의 유관성 등을 떠나서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의 이상,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만족 자체를 추구하는 지식 추구의 이상은 지극히 중요하며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정한 종류의 지적 호기심만을 지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박하거나 유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아무런 지적 호기심이나 다 추구하고 장려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III.

대학에 의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이 크게 무리를 빚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 사회의 학문, 문화의 발전은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사회 발전에도 큰 장애를 빚으며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도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16, 17세기 유럽의 과학혁명 시기의 대학이다.⁵⁾ 당시 유럽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었고, 새로운 계층이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지식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13세기에 처음 출현한 이래 변함없이 기독교 신학,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 및 과학에 바탕한 교육, 그리고 극도로 사변적이고 논리위주이고 “책위주”이고 세부적, 지엽적 문제에 천착하는 “스콜라학풍”(Scholasticism)의 학문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거나 대학에서 배운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 당시 대학의 학생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대조적이었던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과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당시 대학의 교육과 지식에 대해서는 공통되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혁명기의 새로운 학문활동과 과학활동은 대학 바깥에서 — 아카데미, 궁정 등에서 —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활동을 위해 런던의 왕립학회(Royal Society)와 파리의 왕립과학아카데미(Academie royale des sciences)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반면에 대학은 한동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보루로, 그리고 새로운

5) John Gascoigne, “A Reappraisal of the Role of the Universities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David C. Lindberg and Robert S. Westman, eds., *Reappraisals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07-260.

학문활동에 저항하는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⁶⁾ 지역적으로는, 예컨대 과학혁명기 이후의 이탈리아, 스페인의 대학들이 그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데 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반면에 대학이 대학 바깥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적극적, 진취적으로 대응한 역사적 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당시까지의 사회의 필요에 부응해서 고전언어와 신앙 및 도덕 교육을 위주로 하다가 남북전쟁 후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현대언어와 과학기술 등 실용적 지식의 교육으로 전환한 미국 대학의 변화,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패전후 독일 문화의 고양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강의를 통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연구 위주의 교육이 시작된 19세기 독일 대학의 변화, 그리고 서구 열강을 뒤쫓아 국가의 부강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입된 서양 과학기술과 서양 학문의 수용과 발전을 위해 이루어진 근대 일본 대학의 설립 등은 그 좋은 예들이다.

대학이 지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하여 마찰을 빚을 때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대학 교수들 자신에게 직접 즉각적으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대학이라는 제도의 속성상 교수가 대학 속에서 권위와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미 대학이 사회를 위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사회가 대학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대학 안에서는 교수가 그같은 권위와 세력을 계속 유지한 채 군림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학문세계, 지식세계에서 대학이 지닌 압도적인 지위 때문에 과거의 비슷한 경우보다 교수의 세력과 권위는 더 오래 지탱될 것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아마도 매우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그같은 대학에 끝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고 말 것임에도 그에 저항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더 큰 무리와 폐단을 빚을 것이고 그같은 무리와 폐단이 더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이 지니는 이런 극도의 안정성은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애초에 그같은 좋은 점 때문에 이같은 안

6) Richard S. Westfall, *The Construction of Modern Science* (New York: Wiley, 1971), Chap. 6.--우리말 번역, 정명식, 김동원, 김영식 역, 『근대과학의 구조』(민음사, 1992).

정된 성격의 대학 제도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안정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고착되면 대학 교수는 차츰 사회와는, 그리고 바깥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냥 대학 내부에서만 “권위”와 “세력”만으로 남게 되어 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같이 되어버린 후의 대학 교수의 삶은 여전히 편안할 수도 있고 교수들은 그같은 편안함 속에 권위와 세력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 그리고 후세에 볼 때 이러한 교수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에 저항하던 17세기 유럽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19세기말 미국 전통고수주의자들, 그리고 구한말 서양문명 도입기의 수구척사주의자들이 바로 그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변화해버린 상황 속에서 변화하지 않은 옛들의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현대의 베이컨과 데카르트들이 지독한 숨막힘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대학시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IV.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다른 글들에서 다루어 질 것이므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그러한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선 기존 분야들 속에서의 내용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이론, 방법, 틀 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이 등장하며, 기존 학문 분야들간 경계가 와해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학문분야들의 전문화, 세분화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문의 이러한 경향들은 어느정도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경향들의 연속임에 비해,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의 성격 한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경영 등이 매우 광범위한 중요성을 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그런 요소들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의 사회, 문화, 지식이 점점 과학기술화, 정보화, 경영화되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를 한마디로 “engineering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대 사회와 문화의 이같은 측면, 형태, 유형, 방식은 이제 지극히 보편화되었다. 어쩌면 이야말로 현대 인간의 삶의, 그리고 현대 사회와 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측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더는 이같은 성격을 일

부 특정 전문분야에 국한된 특수한 성격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현대의 지식, 문화의 모든 분야가 이같은 “engineering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이렇듯 engineering 위주가 되고 engineering 취향이 되어 버린 사회 현상을 일반 지식인의 관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와 문화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간의 삶과 가치와 믿음에 대한 지적, 학문적 탐구의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V.

오늘날 대학이 지닌 문제의 큰 부분은 대학이 현대사회의 지식이 처하게 된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학의 교수와 그들이 다루는 지식이 대학의 오래된 조직과 편제에 안주하여 거의 절대적인 관성으로 옛틀을 고수하며 외부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에 특히 심하다. 물론 대학 체제의 어느 정도의 안정은 필요하며 그것이 학문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외부의 변화에 눈을 감은 채 옛틀을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학의 속성들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학과간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과대학 사이의 경직된 장벽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대학의 모든 활동과 결정이 철저하게 학과와 단과대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으로 제도적이기보다는 대학인의 관념 속에 깊이 심어져 있는 장벽을 들 수 있는데 바로 “문과-이과” 또는 “인문사회-자연”의 경직된 구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같은 임의적 구별이 복잡한 현대의 사회, 문화 현상의 이해를 막고 있음은 분명하다.⁷⁾ 사실 이제는 이른바 “두 문화”(two cultures) —전통적 인문 문화와 새로운 과학 문화—의 대립이라는 문제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특히 대학 이외의 곳에서는— 두 문화 사이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 평형이 깨어져서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사회와 사람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아직도 이

7) 김영식, “문과-이과 구분의 임의성과 그 폐단”, 『과학과 철학』 제4집 (1993), 20-34쪽.

런 옛스러운 이분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⁸⁾ 우리 나라 대학의 불변의 속성중 역시 심각한 또 한가지는, 오히려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직업 분야와 일반학문 분야의 교육과 인력양성이 구분되지 않은 채 똑같은 성격과 위상을 지니는 단과대학들에 속해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대학 체제의 문제이다. 그리고 끝으로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이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적, 세부적, 지엽적 문제에만 얽매이는, “신스콜라학풍”(neo-Scholasticism)이라고 부름직한 경향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제기하는 변화된 지식의 요구에 대학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할 것은 당연하다.

VI.

사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이같이 변화된 지식의 상황과 전통적인 옛틀에의 집착이 빚는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역시 여러 곳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 글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한가지 점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전통적 인문학에의 집착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며 위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인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외면하고 전통적인 인문학의 성격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오히려 “비인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참다운 인문적 접근 —인간의 삶과 현실의 여러 문제에 대한 반성, 성찰, 탐색—의 태도는 견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인문적 탐색은 제대로의 대상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문학이 대상으로 하는 삶, 문제, 현실이 과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것들인가? 아마도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위기를 빚은 것이 아닐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인문학자들에게 인문학의 대상이 고착되어 바뀌지 않고 있고, 근대 인문학이 처음 자리잡던 시기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나 중국 송대, 또는 기껏해야 서양 계몽사조기 또는 우리나라 개화기—의 전통적인 대상

8) 두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Charles P. Snow, *The Two Cultures: And a Second L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을 볼 것.

과 주제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그 후 인간의 삶은 크게 바뀌었고 특히 최근 수십년, 심지어 지난 몇년 동안의 인간의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바뀌었으며,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워진 인간의 삶, 문제, 가치 등을 인문적 반성, 탐색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대상, 주제들만이 아니라 현재의 인간의 삶의 현실과 문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 인문학의 주제와 대상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르네상스 시기나 송대와 같이 새로운 사상적 조류,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모습이 대두되던 시기에 그러한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삶, 가치,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또한 그러한 새로운 사상, 문화가 새로운 가치, 문제 등을 빚고 있는 시기이고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인문학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인문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전통적 대상과 주제에 대한 인문적 반성, 탐색을 통해 인문적 가치체계를 찾아내고 그 가치체계를 변화된 인간의 삶과 문제에 적용하는 차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 머무를 수 없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변화된 현재의 삶과 가치, 문제들을 대상으로 인문적 탐색을 통해 새로운 가치체계를 찾아내는 새로운 인문학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인간의 삶과 문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과학기술, 정보, 경영 등이 당연히 인문적 추구의 중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 역사, 철학 모든 분야가 현재 우리의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기존의 대상, 주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이들 새로운 문화요소들에 직접 마주쳐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인문적 반성과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인문학은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⁹⁾

VII.

그러면 지식의 변화에 대응해서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이야기했듯

9)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한 문과-이과의 구분이나 과학기술의 문화 일반으로부터의 유리상태는 문제 해결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더욱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주 주장되어 와서 이제는 펍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그 근본적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고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먼저 사회 전체로 볼 때, 단일한 한가지 유형의 대학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보완적인 대학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각 대학이 각 대학에 적합한 유형을 발전시켜야 하며 교육당국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지식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한 대학이나 한가지 유형의 대학들이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¹⁰⁾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모든 대학들이 전문직업 분야, 일반학문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모두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겠다고 나서는—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하나의 대학내에서는 그 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과대학-학과(학부) 편제에서 벗어나서 각 학문 분야의 다양한 성격에 맞는 교육 및 연구 편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활동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인식에 바탕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 대학내에서는 경직된 학과, 단과대학 조직이 깨어지고, 변화된 지식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직, 편제가 형성되어야 한다.¹¹⁾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 변화된 지식에 바탕한 사회적 요구에 응해서 대학의 조직과 편제를 바꾼다기보다는 기존학과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이 기회를 편승해 분야의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추진되기도 하고 있다. 실제 행해지는 일들은 대부분 기존 학과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합치는 “조편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 통합에 멈추고 있으며, 순전히 이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냄으로써 마치 대단한 통합을 통해 무슨 변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려 하기도 한다. 때로는 당연히 합쳐져 있었어야 할, 당초부터 나뉘어지지 말았어야 할 학과들이 합치면서 “학과”가 아니라 “학부”, “학과군” 등의 거창한 이름을

10) 장희익 외, “대학 기능 분화를 통한 대학 교육 다양화”, 김남두·김영식 편,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민음사, 1996), 21-48쪽.]

11) 김남두 외, “연구중심대학의 교육 및 연구 편제”, 김남두·김영식 편,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65-97쪽에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

붙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이한 이름의 학부들이 생겨나기도 한다.¹²⁾ 결국 실질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통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그리고 그러한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받아들여 주는, 우리 모두가 젖어있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 이렇게 대학 개혁 작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대학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BK21”이라는 불가사의한 이름의 시책도 이렇게 대학 사회 전체가 벌이고 있는 “이름만의” 변화와 개혁의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할 변화의 방향은 대학내 각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 규모, 조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가 일정수의 학생을 학부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또 연구도 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구, 교육, 인력양성 각 부문에 있어 전문직업 분야와 학문 분야, 그리고 학문분야 중에서도 도구 학문 분야와 순수학문 분야 등이 각각 그에 적합한 규모, 조직, 방식을 지녀야 한다. 예컨대 의학, 법학, 약학, 경영 등의 전문직업 분야와, 예체능 분야, 공학 분야, 그리고 일반 학문분야가 각각에 맞는 교육과 연구의 편제 및 규모를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의 두가지 기능, 즉 인력양성과 학문연구가 구분되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연결통합시키지 않고 2중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야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주어질 비중은 각각 다르게 마련이고, 연구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분야들이나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시하는 분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교육활동의 규모와 연구활동의 규모가 반드시 같거나 서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느 한 분야의 교육의 수요가 극히 작아도 그 분야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수요가 없는 분야에서 연구에만 종사하는 인력을 수용하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전공으로 교육받는 일정수의 학부 전공생까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의식구조에 바탕하고 있는, 현재 통용되는 대학 관념과는 전혀 다른 관념을 요구한다.

이런 점을 좀더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현재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12) 굳이 여기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수많은 예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이름의 학부에 속하게 된 구성원들로서는 참담한 일이겠지만 남의 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이 보게 된다.

생각되는 교육과 연구가 처음 대학에 자리잡는 과정은 전혀 별개였음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처음 출현했을 때부터 대학은 계속해거 철저하게 교육 위주 조직이었는데 19세기중 독일에서 연구의 기능이 대학에 자리잡고 이것이 다른 지역의 대학들로 퍼져 나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에서 연구가 교육과 연결되어 자리잡게 됨으로써 교육은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분야는 생각하기 힘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빚어졌지만¹³⁾ 이는 비교적 최근의 특수한 역사적 현상이고 또 대학이 본질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들이 일본과 유럽 대학의 연구소들이다. 이들 지역의 연구소들 중에는 직접 교육에 종사하지 않는, 심지어는 교육의 필요가 없는 희귀한 비실용 분야의 연구인력이 교수라는 직함을 지닌 채 연구에만 종사하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의 수요와 유리된 “잉여”의 학문활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이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학문적 역량의 상승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잉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가 적거나 없는 분야에 일정 규모의 전공교육을 고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잉여인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방식을 통해 그 분야의 높은 수준의 학문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는 아주 효율적인 “잉여”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사실상 대학개혁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몇가지 방향의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학과구조 등의 대학 편제상의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그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 그러한 변화의 대상이 되는 관련당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결정은 전체 대학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앞서 보았듯이 그 속성이 안정지향적이어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려 들지 않게 마련일 뿐 아니라, 직접 관련당사자들이 변화된 사회의 상황과 지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처해서 제대로의 결정 —특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체 대학 차원의 주체가 담당해야 함이 분명해 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도 아니며 학문분야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침범하는 것이 될 수도 없다. 대학 편제의 문제는 여러 분야들

13) Roger L. Geiger, *To Advance Knowledge: The Growth of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1900-19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이 한 대학내에서 또는 한 사회의 대학체제 안에서 지녀야 할 역할과 위치를 선택, 결정하는 문제이지 각각의 분야의 전문지식에 바탕해서 결정해야 할 학문 분야들 내부의 전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